

PUBLICATION

서울북인스티튜트 (SBI)에 거는 기대

표정훈 | 출판평론가

소형이든 대형이든 출판사로서는 신입사원을 뽑아 교육시킬 만한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2~3년 정도 출판사 근무 경험을 지닌 경력자를 선호한다. 출판 현장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을 뽑아 교육시키는 데 드는 물적, 시간적, 정신적 비용보다 경력자에게 월급을 더 주는 편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게 여러 해에 걸쳐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지다 보니, 이제는 경력자도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데 있다. 자승자박이라고 할까? 많은 출판사들이 적합한 경력자를 못 구해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린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혜경)에서 올봄부터 서울북인스티튜트(SBI)를 개소,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출판계, 전문교육기관 필요하다
장준환, 박기용, 이재용, 봉준호, 김의석, 임상수, 허진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모두 영화감독들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이 감독들은 모두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이라는 것이다.



한국출판인회의
신임회장 김혜경 씨

작년까지 33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한국영화아카데미는 1984년 서울 남산 영화진흥공사(현 영화진흥위원회) 소속 교육기관으로 시작됐고, 1995년 영화진흥공사와 함께 홍릉으로 이전했으며, 2000년부터는 교육기간이 2년으로 늘었고, 2001년에는 남산의 구 서울예대 예술관 건물에 독립 교사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영화가 아닌 출판을 이야기하는 지면에서 왜 느닷없이 영화아카데미를 들먹이는가? 90년대 이후 우리 영화계가 르네상스를 맞이한 데에 한국영화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 출판계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였다. 영화아카데미는 명실상부한 실습 위주 교육으로 유명하다. 영화 제작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온 것이다. 교육 내용과 과정뿐 아니라 강사진도 영화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질문을 되풀이해 본다. 그렇다면 우리 출판계는? 물론 출판 관련 학과를 설치한 대학들이 드물지 않다. 출판미디어학과, 정보출판과, 디지털출판미디어학과, 출판광고학과, 출판만화학과 등 그 이름도 다양하다. 흥미로운(?) 점은 출판과 혹은 출판학과라고 이름 붙인

학과는 없고 미디어, 정보, 디지털 등 첨단 분야의 분위기가 나는 말을 덧붙여 놓았다는 점이다.

‘출판’이라는 말 하나만으로는 속되게 표현해서 ‘장사가 되지 않는’ 현실, 즉 많은 사람들이 출판이라고 하면 뭔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지.

그 밖에 각 대학 특수 대학원의 언론정보대학원, 언론대학원, 신문방송대학원 등에 출판 전공 혹은 출판 및 잡지 전공 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한겨레문화센터에 출판 관련 강좌가 여럿 개설되어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한국출판인회의 산하 한국출판아카데미가 출판편집자 입문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 정도면 우리 출판계도 출

서울북인스티튜트 내부 전경



판 인력 교육 체계를 제법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천만의 말씀이다.

먼저, 대학의 출판 관련 학과들은 학과 자체가 존재 기로에 서 있는 곳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출판 관련 학과만의 현상이라기보다는, 많은 대학들이 정원 미달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우리 대학 교육계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출판계에서 출판 관련 학과 출신 인력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게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바꿔 말하면 출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교양을 쌓고 문장 감각이 있으며 외국어 실력도 탄탄하게 다진 사람이 있다면, 굳이 출판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면 특수 대학원의 출판 전공 과정은 어떠한가? 일반 대학원과 달리 사실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재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사진 구성이나 커리큘럼 구성, 강좌 내용 등이 명실상부한 출판인 재교육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게 현실이다. 어떤 경우에는 구색 갖추기 차원에서 출판 및 잡지 전공 과정을 개설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명무실해 보인다.

물론 없는 시간을 쪼개어 2, 3년에 걸쳐 여러 대학원 강좌를 이수하고 논문까지 쓰는 대학원생들의 열성만은 매우 소중하다.

한편 한겨레문화센터의 출판 관련 강좌에는 출판편집자 입문과정, 출판마케팅, 교정 및 교열, 편집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번역 강좌, 출판기획, 출판창업, 북아트, 출판저작물 수출입 기획 등이 있다. 강사진 가운데



한국출판인회의와 서울북인스티튜트가 들어선 건물

데는 출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많고, 강의도 다채로운 편이며, 시의성에 맞게 새로운 강좌를 개발하는 노력도 돋보인다.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과 달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주제의 강좌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이 장점을 바꿔 말하면, 체계적인 출판 교육 과정이 아니라 일종의 ‘단과 학원’이라는 뜻이 된다. 물론 단과 학원이 지닐 수 있는 상대적 장점이 많지만, 강사 혹은 강사진의 스타일이나 경력 등에 따라 강의 내용 자체가 크게 달라지거나 수준의 편차도 클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운영해 온 한국출판아카데미 출판편집자 입문과정이 남았다. 출판계 스스로가 신규 인력 양성 및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현직 편집장, 주간, 대표 등이 강사진의 주를 이루며, 강좌 주제에 따라 현직 언론사 기자, 대학교수, 책 제작업체 관계자 등이 강사가 될 때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도 비교적 집중적이기는 하지만 2개월의 단기 과정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2개월 남짓한 기간에 20명 정도의 강사들이 진행하는 각 2-3시간의 강

서울북인스티튜트의 설립은 정부의 예산 지원에 힘입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투입된 이상, 서울북인스티튜트가 결코 한국출판인회의라는 출판계의 한 단체만의 것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앞으로도 계속 유념해야 할 것이다.

좌를 듣게 되어 있다. 강사마다 주제와 스타일이 다를 터이니 수강자로서는 출판의 다양한 측면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바꿔 말하면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분위기를 익히는’ 주마간산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력자조차 구하기 힘든 출판계 현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출판 인력 교육 과정 및 기관들을 놓고, 이걸 이래서 안 되고 저런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식으로 괜한 시비만 건 것 같다. 그래서 덧붙이자면, 개인이든 기관이든 장단점을 모두 지니기 마련이다. 오히려 어려운 제반 여건 속에서도 출판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사명감을 갖고 출판 교육에 애써 온 여러 교육 과정 및 기관의 관계자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분들의 노고와는 별도의 문제로, 최근 우리 출판계가 신입사원을 좀처럼 뽑지 않는다는 현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소형이든 대형이든 출판사로서는 신입사원을 뽑아 교육시킬 만한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2-3년 정도 출판사 근무 경험을 지닌 경력자를 선호한다. 출판 현장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을 뽑아 교육시키는 데 드는 물적, 시간적, 정신적 비용보다 경력자에게 월급을 더 주는 편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게 여러 해에 걸쳐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지다 보니, 이제는 경력자도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데 있다. 지승자박이라고 할까? 많은 출판사들이 적합한 경력자를 못 구해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린다. 앞서 언급한 한국출판아카데미를 운영해 오던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혜경)는 올봄부터 서울북인스티튜트(SBI)를

개소,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그 동안 23억을 투자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건평 160평의 4층 건물에 강의실 여러 개를 갖춘 출판전문교육기관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교과 과정 및 강의 교재 개발과 강사 선임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간에 준하는 공공성 갖추기를

설립 목적이 눈부시다. 출판산업 분야 신규 인력을 위한 교육과 훈련, 출판 산업 종사자를 위한 재교육과 전문 문화 교육, 출판 산업 표준화를 위한 교재 개발, 출판 인재 풀(pool) 구성, 차별화된 교육사업 경영으로 한국 출판회의 수익 기반 확보, 교과 과정도 편집자 입문 과정과 디자인 과정 외에 교정교열 과정, 영업마케팅 과정, 창업 과정, 저작권실무 과정, 제작실무 과정 등의 정규 과정과, 실전워크숍, 외국어독해 과정 등 모두 10개 교육 과정을 동시에 개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강사진도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출판 현장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며,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출판 현장에서 즉시 실무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 더구나 수년 후에는 정규 대학원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출판 전문 학교를 지향한다고 한다.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계획대로라면, 단기적, 비체계적, 입문적, 개괄적, 산발적이었던 기존의 출판 교육에서 탈피하여 포괄적, 체계적, 종합적, 실무적 출판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지닐 수 있을 법하다. 반복이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계획대로라면, 바야흐로 우리 출판계도 영화계의 영화아카데미에 견줄 만한 교육기관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장밋빛 기대도 해보게 된다.

그러나 장밋빛 기대 이전에 몇 가지 유념할 점도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 우선, 서울북인스티튜트의 설립은 정부의 예산 지원에 힘입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투입된 이상, 서울북인스티튜트가 결코 한국출판인회의라는 출판계의 한 단체만의 것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앞으로도 계속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예산 집행이나 회계 처리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건 기본이고, 제반 운영에서 사실상 공적인 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과정에 관한 문제가 되겠지만, '출판 기술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출판인'을 양성하는 곳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현장성과 실무 위주 교육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출판 관련 제반 기술에 능숙한 테크니션을 양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출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이나 교양을 함양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질 위험이 있다. 물론 출판 전문 교육 기관을 표방한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성, 전문성, 실무 능력 등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식(良識)과 교양 측면의 강좌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출판 교육 측면의 대외 교류에 대한 전망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영미권이나 유럽이 멀다면 상대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공유하는 바가 많은 동아시아부터라도 말이다. 우리 출판물의 해외 도서시장 진출이라는 구체적인 과제 차원에서도 그런 전망이 중요하거니와, 명실상부한 세계화 시대의 출판 환경에 적응하려면 우리 출판인들의 사고와 시야의 폭이 넓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설립 목적에 들 만한 사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외 교류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